

밀레니엄 첫해를 보내면서



玄 李 俊 웅

공학박사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월의 흐름은 우수와도 같아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알린 경진년 한해가 저물고 신사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본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늘 다복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학회장에 취임하면서 학회의 활성화와 학회 위상의 제고를 위하여 몇 가지 중점 추진 사업을 제안하여 회원 여러분들에게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 재임기간 중 이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고도정보화시대의 도래로 기존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많은 혼돈과 구조적 변화가 급격히 요구되어지는 지금,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회장단, 임원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로 우리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는 내외적으로 시대의 요구에 낙오되지 않고 점차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시대의 혼돈 속에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회장의 임무를 큰 무리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회원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지난 1년 동안의 중점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열린 학회 운영을 위하여 학·지연을 탈피하고 지식과 경험을 구비하고 계신 유능한 분들이 학회 활동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애쓴 결과, 능력 있는 신진 회원들의 학회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신 회원들의 고른학회활동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작년 11월 2일에 실시된 2001년도 차기회장단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득표 결과가

특정 지역이나 인맥을 따라 편중되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에게 고르게 분포된 것을 볼 때 우리학회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열린 학회로 재조명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삼성, 현대전자, 대우, 현대, LG,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및 두산그룹등 세계적인 우수그룹들 이외 30여 개 산업체와 산학협동체계를 갖추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학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과 이들 대그룹 임원진들을 2001년도 회장단으로 영입할 수 있었던 것도 크나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8개 전문위원회와 5개 지부에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전문위원회와 각 지부가 중심이 되어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세부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지역상호간의 균형 있는 학문의 발전에 일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하계학술대회를 신설, 작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제1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결과, 산업계와 학계에서 300여 편의 수준 높은 논문이 발표되었고 산업계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성공리에 학술행사를 마쳤는데 이를 계기로 학회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으로 기억되며 회원들의 화합과 정보 교류의 장이 보다더 강화되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셋째로, 그동안 간행이 중단되었던 영문 논문지가 속간 되었는데 본 학회 영문논문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등 세계적인 석학 13분들을 본 학회 영문지의 심사위원으로 유치한 것도 기억에 남는 일이며 이는 장래 SCI등제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00년12월5일 교육부에서는 철학, 화학, 기계, 재료, 및 전자등 13개분야 1500여 개 논문지중 369개 학술지를 평가 A, B, C 3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본 학회 논문지가 창립 50주년이 넘는 대한전기학회나 대한전자공학회등의 학술논문지와 같이 국제적인 수준 급인 A급으로 평가받는데 대하여 회원 여러분들과 같이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며 교육부에서는 200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교수 년봉책정과 승진시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은 A등급으로 평가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학술진흥재단에서 국내 총 1,500여 학회의 논문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3년 동안의 국내 SCI 인증평가 작업에 우리 학회에서도 참여한 결과, 본 학회 국문 논문지가 '국제적 수준 또는 국제적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A 등급'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며 그 결과는 2001년2월중에 예하 신문지상에 발표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학회 국, 영문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을 포함하여 춘계, 하계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1년 동안의 총 논문수가 800여편에 달하는데 본 학회 창립의역사가 일천한 것을 감안할 때 본 학회는 그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학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99년도에 2억 5천만원 규모의 학회 살림이 2000년도에는 3억 8천만원을 상회하여 그 규모 면에서 50% 이상의 성장을 가져 왔으며 2000년11월부터 월100만원의 적금가입과 1,000만원의 정기예금 기탁등의 결과로 3,300여만원 밖에 이월금을 남기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또 삼성, 현대전자, 대우, 현대, LG,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및 두산그룹등 세계적인 유수그룹들 이외 30여 개 산업체에서 그동안 광고협찬등 물심양면으로 본 학회를 도와주신 임원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금년 학회사업으로 추진하였던 학회 영문년사와 1998년 및 1999년 2년간 학회지에 투고되었던 테마기획을 CD로 발간하였는데 그 판매수익금은 3,000여만으로 예상되어 지는데 이 또한 기억에 남을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학회 창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평상시 늘 존경해 마지않던 강도열, 성영권, 오명 및 이덕출박사님들을 회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본 학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이분들의 존영을 학회장을 역임하신 분들의 존영들과 함께 학회 회의실에 영구적으로 나란히 부착하여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게 한점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으며 이들 명예회장님들을 이사회 때마다 모실 수 있게 한 것은 이사회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병욱 사무국장, 김명진 사무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학회사무국의 체제를 보강한 것도 기억에 남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학회 본부와 지부의 간판 크기를 알루미늄으로 통일,

제작하여 사무실입구에 부착케하므로써 본 학회와 지부의 위상을 높여 회원들의 긍지를 갖게 한 점도 기억에 남을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던 용평리조트 골프장에서 산학협동 골프대회를 개최한 것과 이를 계기로 산학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력골프회를 정식으로 결성하여 춘추계연2회 정기대회를 갖게 한 것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학회는 지난 한해는 물론 13년이라는 일천한 역사를 가진 학회로서는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21세기는 첨단정보통신이 시대를 선도하는 한 차원 높은 생존 경쟁의 시대로, 한 나라의 운명이 첨단 과학 기술의 보유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 간의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학회 회원들의 연구 분야인 전기·전자 재료는 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공학의 원천 기술로 이 분야 저변 학문의 구축 없이 연계 학문 분야의 개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명감과 양심을 가진 연구자가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역할을 우리학회의 회원 모두가 짐지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학회가 이루어낸 결실들로 미루어 볼 때 우리학회는 국가가 요구하는 목소리에 충분히 화답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해 무한히 도약할 수 있는 저력을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학문분야를 연구하는 학회임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열악해지는 연구여건과 생활조건들을 극복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학회의 회장으로 재임동안 회장단과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회원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적극 성원해주신 덕택에 맡은 바 소임을 마칠 수 있게 되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학회가 국내는 물론 세계를 선도하는 학회로서 빛나는 표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대내에 늘 행운이 가득하고 강건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